지니의 한국 사는 이야기
'나는야 1.5세 아줌마'

이십 년 전 이야기

스물한두 살 때쯤 나는 유학생 남자 친구를 사귀었다. 초등학교 동창으로 미국에서 재회하였는데 우리는 죽이 잘 맞아서 자주 어울렸고 자연스레 소위 썸을 타게 된 것이다. 막 썸을 타기 시작했을 무렵 이 친구는 UCLA에서 어학연수 과정을 밟느라 LA 소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두 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살았다. 남자친구만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고 다른 두 명은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들이었다. 원래 친분이 있던 사이는 아니고 그저 아파트 렌트비를 절약하기 위해 함께 사는 룸메이트 관계여서 서로 교류가 많은 편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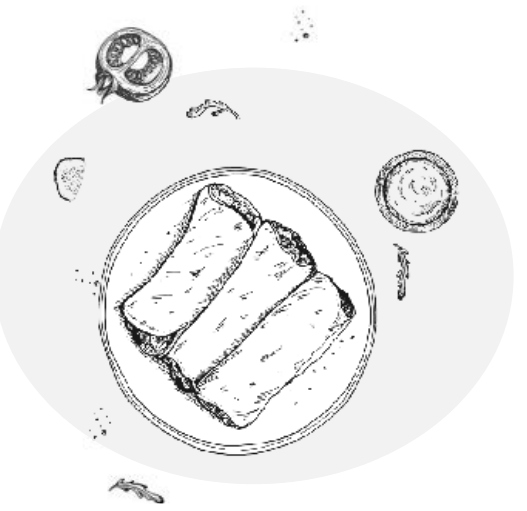
나는 두세 번쯤 그 아파트를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날은 그의 교포 룸메이트 중 한 명이 집에 있었고 마침 저녁 시간이라 부엌에서 한창 요리를 하고 있었다. 요리가 완성되자 그는 자기 먹으려고 만든 스크램블 에그 부리토를 내밀며 먹겠냐고 물었다. 예의상 묻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웬일인지 사양하지 않았다. 일부러 넉넉히 만든 것 같지도 않았기에 내가 그 부리토를 덥석 받아 먹으면 그의 저녁이 줄어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마도 프라이팬에서 풍겨오는 계란 냄새가 너무 좋았거나 조금 출출했던 모양이다.

내 기억 속 그의 요리 비주얼은 요리 못하는 자취생의 계란밥 수준이었다. 접시에 덩그러니 토르티야, 계란, 토마토가 보였고 한편에 케첩을 뿌려주었는지 살사를 뿌려주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뭔가 어울리는 소스가 있었다. 나는 평소 멕시칸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라 부리토며 타코를 숱하게 많이 먹어봤지만 이런 조합은 처음이어서 그 맛이 궁금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다. 계란과 토마토만으로 만들어져서 이게 무슨 맛이 있으려나 싶지만 담백하면서도 부드럽고 조화로웠다. 일반적인 부리토와 달리 해비하지 않아서 부담 없이 두 개, 세 개 계속해서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남자친구가 엘에이 아파트를 떠나며 다시는 그 룸메이트들을 볼 수 없었고 이제는 얼굴들도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그 부리토만큼은 종종 생각났다. 그래서 레시피도 찾아보고 여러 번 도전도 해보았지만 이상하게 달랐다. 내가 만들면 비릿한 계란 맛이 너무 강하거나 푹 익은 토마토의 물컹한 식감이 싫거나,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그런 맛이었다. 욕심내어 햄도 넣어보고 치즈도 넣어보고 나름 업그레이드를 시도했지만 매번 맛은 실망스러웠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출시된 비슷한 스타일의 블랙퍼스트 부리토들도 먹어보았지만 영 그때 그 맛이 아니었다.

굳이 레스토랑에서 주문해서 먹고 싶은 대단한 요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때때로 생각이 나는데 다시는 그때 그 맛을 느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얼마 전에도 문득 생각이 나서 직접 만들어 봤는데 역시 별로였다. 내가 더 이상 스물둘이 아니고 마흔둘이기 때문인 걸까.....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 시절 그때만 느낄 수 있는 청춘의 맛 같은 것이었을까.....

나는 스크램블 에그 부리토를 잘 만드는 교포 룸메이트를 두었던 그 당시 남자친구와 3년 넘게 뜨거운 연애를 했고 스물여섯에 결혼해 애 넷을 낳고 살고 있다. 이십 년이나 지나버린 무심한 세월 속에 두둑한 뱃살과 자글자글한 주름살을 얻었지만 가끔씩 그때 그 맛이 그립고 그 당시 푸릇푸릇 싱그럽던 젊음이 그리워지곤 한다. 나중에 남편을 통해 들은 이야기지만 그 룸메이트는 유난히 요리 솜씨가 형편없는 요리 똥손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내가 맛있게 먹었던 그 부리토는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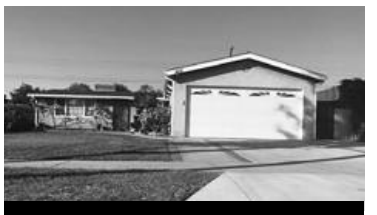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REDPOINT REALTY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풀러톤 단독 주택 54만불
믿을수 없는 가격의 싱글홈
방 3 화 2 대지 7200 sqft
풀러톤 다운타운에서 5분 거리

아직 마켓에 안나온
풀러톤 코요테 힐스 플랜4 95만불
최고의 학군 안에 있는
풀러톤 코요테 힐스 플랜 4
방 3개 화 3개 2100 sqft


라미라다 싱글홈 단독 주택
라미라다 싱글홈 단독 주택
방 4 화 2 1275 SQFT 대지 5800 sqft

부에나팍 콘도 타운홈 66만불 2006년
방 2개 화 3 ½ 1632 sqft
Founders Walk위치!! 1층에 방과 욕실. 2층에는 아주 넓고 세련된 주방과 거실, 집안 전체마루. 3층에는 침실 2개와 세탁실. 각 방마다 화장실. 마켓에 오래있지 않을 매물

풀러톤 단층집 869천
방 3 화 2개 1658sqft 대지 9500sqft
많은 과일 나무들을 포함한 많은 최근의 업그레이드들.
모든 침실에는 천장 선풍, 유지 보수도 쉽고 적은 아늑한 뒤뜰. 훌륭한 학교, 이웃

풀러톤 타운홈 725천불 2077sqft
방 3개 화 2개 (아직 마켓에 안나온집)
24시간 안전한 게이트 커뮤니티 페어웨이 빌리지!! 웅장한 거실과, 웅장한 천장, 벽난로, 무성하고 사적인 공동 구역의 인상적인 경치. 초대형 마스터 스위트룸과 전용 발코니. 1층에 침실 2개와 리모델된 욕실, 풀러턴의 중심부 위치.

풀러톤 단독주택 859천불 2442 sqft
방 5개 화 2.5 개 대지 7519 sqft
롤링 힐스 스쿨과 크레이그 파크...2층 – 5 베드룸 플러스 패밀리 룸, 2–1/2 욕실, 2,442 Sq. Ft. 2,419 Sq.ft. RV parking. 충분한 뒷마당공간

풀러톤 단층 단독주택 918천불
방 3 화 2 1936 sqft 대지 8833sqft
풀러톤 최고의 학군 넓고 햇볕이 잘 드는 집, 오픈 패밀리 룸, 대형 거실, 디자이너 조명, 천장 팬 및 크라운 몰딩 전체. 멋진 파티오,라구나 호수 근처, 차고 위쪽에 커다란 다락방. 전기 자동차 충전 가능.

풀러톤 타운홈 렌트
방 2개 Den 1개 화 2개
초중고 도보 거리
학군 좋은 곳
$2,700

풀러톤 타운홈 렌트
방3 화3개 4월 입주 가능
비치와 로즈크랜 근처
깨끗한 단지, 공원 근처
수영장
$3,150

사업체 매매
성업/발전 중인
한인 유명 베이커리
한달 순수익 2만불
종업원 운영, E2 가능

뉴포트비치 상가 리스
포텐셜 아주 좋은 뉴포트비치
9대 파킹 가능, 단독 주차장
주위 상권 활발한 번화가 위치
그루밍샵, 커피샵, 델리 등
발보아 섬 근처
*비지니스 대박 포텐셜 자리
*아주 좋은 리스 조건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정상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마켓 최고의 가격으로 7일 안에 팔아 드립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명예부사장
Honorary Vice President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DRE Lic. 02086695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